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

11
1999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이재하
(우 463-05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수의과학회관 402호)
☎ (0342)707-5722~4　FAX (0342)707-5725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263-3598

제5권 제11호 통권53호

병아리 생산을 줄여 불황을 타개합시다.

(사)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

다음은 지난 10월 20일 본회와 대한양계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제출된 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의 결의내용입니다.

10월들어 육용 병아리값이 폭락되고 말았습니다.

IMF의 영향으로 육용종계 입식수수가 대폭 감소된 결과 98년 4/4분기 들어 실용계 생산량도 따라 줄었고, 그 결과 병아리 값은 큰 폭 상승되었습니다.

한 예로 97년도의 연평균 병아리 가격은 수당 278원이었던 것이 98년 347원, 99년은 9월까지 485원, 특히 지난 상반기 가격은 537원을 기록해 수당 620원에 한 달 이상 지속된 바 있는 지난 95년과 96년도 상반기 병아리 가격 489원과 472원보다 각각 9.8%, 13.7%높게 형성된 가격입니다.

실제 종계 · 부화업계는 95년과 96년도의 호황이 있은 직후 97년과 98년도는 최악의 불황을 맞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97년도의 경우 복 경기를 앞둔 2/4분기의 평균 가격은 수당 165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호황이 장기화되면서 종계입식 증가와 강제환우가 늘어나 병아리 생산량은 증가되고 말았으며, 수입닭고기는 물밀 듯이 들어와 우라나라 전체 닭고기 생산량의 18.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계입식 증가, 백세미생산 증가, 닭고기 수입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난 97년과 같은 불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최근의 육계가격은 약 2개월 동안 kg당 600원~900원 내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출하되는 육계의 입추당시 병아리가격은 수당 470원으로 출하가격의 50%를 넘고 있어 육계농가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각종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금후 생산될 육용실용계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처럼 많은 양이 전량 육계로 생산될 경우 최근과 같은 육계산업의 불황은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10월을 지나면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던 예년의 닭고기 소비를 감안할 때 육계값의 큰 폭 상승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한편 육용종계 입식과 최근의 강제환우 추세를 감안할 때 금후 병아리생산량의 증가는 생산성에 있어 이변이 발생되지 않는 한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생산감축만이 불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임을 다같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강제환우는 절대 시키지 않는다.

최근 병아리가격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회복세를 되찾기에는 상당히 멀게 느껴짐에 따라 다수의 농가가 강제환우를 계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급격히 증가한 육용종계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병아리값이 급락된 점과 관련하여 강제환우를 실시한다면 신계군에서 생산되는 시점과 맞물려 다가오는 연말연시의 병아리 생산량은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육중인 종계 30%이상 감축한다.

금년 9월까지 입식된 육용종계 총 입식수수는 전년동기대비 1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중 금년 상반기에 입식된 계군이 전년동기대비 집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병아리생산에 가담중인 육용종계수수는 이미 적정 생산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종계입식 조절을 통해 사육수수를 줄인다.

금년 9월까지의 종계입식수수는 2백94만5천수로 지난해 총 입식량의 91%가 이미 입식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 입식된 종계의 월평균 입식수수를 32만7천수로 볼 때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숫자가 모두 입식될 경우 금년도 육용종계 총 입식수수는 4백만수를 육박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수치는 지난 96년 입식량에 근접하는 숫자로서 97년도 육용병아리값의 폭락이 재연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